

수종사水鐘寺 물소리

최 분 임

저기, 저 강물 굽이치는 소리에 귀 던져둔 늙은 절 하나 있지

절을 빠져나간 귀가 데려오는 흐린 강 한 자락
요사채 마루 잦은 헛기침 소리에도 아득하게 돌아나곤 하지
내 얽은 잠 속 일주문을 들락거리던
산 아래쪽으로 가부좌 튼 해우소 앞 은행나무 한 그루
저 세월 안쪽 누군가 몸속을 비우려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는지
노복老僕같은 몸 늘어진 가지마다 강물 서성이는 소리를 매달지

강기슭 환한 영덩이 내려놓고 물결 해찰하던 보름달이
제 발밑 어린 짐승들 고픈 배를 끌고
대웅전 앞마당 바싹 마른 적요를 쓸어 담는 새벽이면
기다림으로 축축한 뗏돌 코고무신 이슬 털고
물빛 탁발 나가는 연듯빛 나뭇잎들,
오래 그리운 것들은 제 그림자를 밟고서도
빛을 찾아 나서곤 하지

그 어스름 길섶으로
꿈은 제 안의 모서리를 깎는 일이라며
풍경소리 속으로 밤낮없이 아가미를 행구러 오는
물고기의 슬픔을 어루만지다보면
텅 빈 목탁소리에 파리 튼 내 가파른 생각들
자박자박 파랑波浪으로 쓸려가곤 하지
주먹만 한 어린 것 하나 매달지 못한
내 마음의 백팔번뇌 돌계단을 때리고 가는
길고 푸른 종소리
누군가를 말갱게 행구하고 있지